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 171절 주께서 울레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 176절 앓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69절-176절

시편 119편은 8절씩 연결되어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아래후」「벳트」(영어로 말하면 AB)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각 글자가 여덟개씩 완벽하게 머릿부분에 나열되 있어
 각단락을 「아래후 시편」「벳트 시편」이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시편 전편 176편중에서 가장 장대한 긴 시편입니다만,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절의 문장에는
 「율법」「증거」「법도」「울레」「명령」「심판」「말씀」「주의 말씀의 강령」「길」등의
 열가지의 단어들 이 교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별한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할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시를 노래하며 이어받아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169절에서 176절은 「타우 시편」으로, 각 절의 머릿부분은 모두 같은 히브리어(알파벳 T)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169절)

「부르짖음」은 매우 절실함에서 내는「울부짖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기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앞에 가까이 가게 하소서」(직역)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부르짖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170절)

앞의 문장과 함께 히브리어로 읽으면 매우 닳아있어, 세트처럼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다」의 의미는 「들어간다」로, 하나님의 귀에 또는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는 「도움을 구하는 절실한 기도, 애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앞 절에 있는 말씀과는 달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시인을 역경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으로 마음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으며 애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가며, 그 뜻을 알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171절)

「찬양」은 「태히라」로, 「시편」은 이 단어의 복수형 「테히리무」입니다.

「할렐루야(주를 찬양하자)」의 친척과 같은 단어입니다.

「애원(테히나)」가 「찬양(테히라)」로 바뀌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며 부르짖」거나 「애원」만이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오지만,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어 무지의 암흑속에서 건져주시고

「율례(변함없는 하나님의 법, 명령)」를 「가르쳐 주시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주를 노래하는 「찬양」이 「넘쳐흐르게」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허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172절)

내면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찬양」이 점점 커져

목소리 높여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171절에서 173절은 「~이므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그「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시므로」

그 의로우신 「주의 법도들」을 내가 「택하였사오니」 (173절),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허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의 마음과 입에 「찬양」을 넘쳐나게 하고, 시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입에 넘쳐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시인의 현실 안에서 「도움」이 되는, 그것이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174절)

시인은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고」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타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며, 「노래」며, 「도움」이 된다고 노래했는데

이번 절에 이르러서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인한테 있어서는, 율법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기계적인, 차가운,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는 시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찬양」이며, 「노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인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을 갖다주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은, 생명을 얻고, 「율법」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율법」이

본래 모세 오경전체 (제사와 윤리)를 의미하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중요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멸망했습니다만,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은 백성」은,

두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175절)

「살게 하소서」는
173절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평행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는 「영혼(네페슈)」과 연결해서 「살게 하소서(하야)」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본인 「영혼을 살게 하소서」에서는 그 뉴앙스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만,
「네페슈·하야」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등장합니다.
흠으로 만드신 흠인형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사람은 생령이 됐다(네페슈·하야)」(창 2:7) 라는 장면입니다.

시인은 이 가장 원시적인 표현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흠인형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산 자」가 된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셔서 「산 자」되게 해주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때 시인은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기를 불어주셔서 살게 하소서 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것입니다.(169,170절)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은 주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시편 115:17)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시편 88:10)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후반부에 문자 그대로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규례」는
재판, 판결, 그 집행, 판례까지의 모든 전 과정, 즉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부를
의미합니다.
말씀에 계시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말로, 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쁨에 넘치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176절)

시편 119편의 마지막 고백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잃은 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는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리를 만나 먹힐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한테 달려있습니다.
목자없이 「멸망하는 양」일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말년을 맞이해도,
아무리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은 길을 헤매는 「잃은 양」에 지나지 않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목자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잊지 않겠사오니(직역)」

잊어버리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잊으면 안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야말로, 119편 전편에 흐르는, 시인의 존재를 건 혼신의 고백입니다.